

# PEOPLE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 영광새마을금고

### 이정재 후보 17대 이사장 당선

올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제17대 영광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이정재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10일 영광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이정재 후보(74)가 1559표를 얻어 기호 2번 박주경 후보(1435표)에 124표 차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수 4985명 중 2997명이 참여해 6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3월 30일까지 4년간이다.

이정재 당선인은 “저에게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더 나은 영광새마을금고를 만들어 달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겨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원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 금고가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



## 켄텍-한국스탠포드센터

### AI 데이터센터 교육·연구 협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최근 한국스탠포드센터(SCIGC)와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을 목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켄텍과 SCIGC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력량 최적화 연구 및 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켄텍과 한국스탠포드센터와의 이번 MOU는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전남도-SCIGC-SFR투자회사-켄텍 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협력을 위한 의향서(LOI) 체결 이후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에서의 협력을 넘어 글로벌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승홍 기자



## 보성군, 주민 SNS 서포터즈 발대

보성군은 최근 북재출에서 ‘제6기 보성군 주민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군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군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선발된 제6기 주민 SNS 서포터즈는 총 52명으로, 연말까지 관광·문화·축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효과적인 SNS 홍보 전략 교육이 진행됐으며, 서포터즈 간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서포터즈가 보다 창의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서포터즈는 “보성의 숨은 명소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어 기대된다”며 “보성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 심헌문화재단, 첫 외국인 장학생 2명 선발...“한국 더 공부”

동강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한국어학당 연수 과정 수료 올해 글로벌조리제빵과 입학

“유학 생활 중 학교가 아닌 외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너무 기쁘고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실력 향상 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동강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신입생(베트남) 2명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심헌문화재단 장학금’을 받았다.

심헌문화재단 장학금은 (재)심헌문화재단이 지역 내 우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쓰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동강대학교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신입생(베트남) 2명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심헌문화재단 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4일 동강대에 입학한 응웬티응옥아잉(NGUYEN THI NGOC ANH·20) 씨와 황티쓰영(HOANG THI SUONG·21) 씨.

이들은 최근 광주 KBC방송국 4층 공개홀에서 열린 ‘심헌문화재단 2025학년도 제20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외국인 첫 수혜자가 됐다. 이들은 동강대 한국어학당 연수생 출신이다. 응웬티응옥아잉씨는 지난해 3월 한국어학당 1기 연수생으로 1년 과정을 마치고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에 진학했다.

응웬티응옥아잉씨는 시상식에서 장학생 대표로 답사에 나서 “장학금을 기회로 한국과 베트남 등 제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공 분야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응웬티응옥아잉씨는 답사 후 국내 장학생들에게 ‘고맙다’ 등의 베트남어를 알려주기도 했다.

황티쓰영씨도 지난해 6월 여름학기 동강대에 입학해 2025학년도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신입생이 됐다.

동강대는 두 외국인 학생 외에도 이번 수여식에서 건축학과 전연경·김건희·김기을·최현서·최현준(이상 2년) 씨 등 5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동강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부 입학의 필수조건인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겨울학기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총 98명이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은 1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리보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광주교육 청렴 결의식’을 개최했다.

##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 청렴 결의식’ 개최

### 이정선 교육감 등 직원들과 청렴 약속...달항아리 이벤트도

광주시교육청은 1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신리보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년 광주교육 청렴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식은 이정선 교육감의 청렴약속 선언을 비롯해 본청 모든 직원이 참여해 청렴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교육 현장을 발로 뛰는 소통 △모든 직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 △그릇된 관행 타파 및 비리와 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 △부당한 업무 지시 없는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4개 실천 사항을 약속했다.

이어 직원들은 청렴 약속을 적은 쪽지를 넣은 ‘청렴 달항아리’에서 4명을 추첨해 청렴 푼다발과 청

렴실천 응원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부서장이 직원들과 청렴 소통의 시간을 갖는 ‘청렴 일깨우기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각 부서는 청렴 키워드를 선정하고, 공동 청렴실천 약속을 정해 3월 중 부서 출입구에 게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청렴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실천에 옮길 때 조직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미래를 함께 여는 청렴한 광주 교육 실현을 위해, 원칙과 양심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직원이 동참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故 김용호 열사 제65주기 추모식...민주열사 재조명

### 여주시, 추모동판 제작식도 가저

여주시는 최근 고 김용호 열사 제65주기 추모식과 함께 추모동판 제작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영 여주시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 유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호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수지역 민주열사인 고 김용호 열사는 1960년 3월 9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을 규탄하던 중 당시 민주당사에서 정권에서 사주한 괴한들의 피습으로 33세 나이에 사망했다.

이는 여수지역 4·19혁명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기리고자 정부는 2010년 4월 19일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이후 2012년 4월 26일 국립 4·19민주묘



지에 안장됐다.

정기영 시장은 “우리 여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고 김용호 열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광주시 동구새마을회, 동전의 모으기 캠페인 새마을지도자광주시동구협의회(회장 기영호)는 최근 범국민 동전 모으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동전모으기는 생활속 점들이 있는 동전을 모아 금융기관 등 수요처로 유통 시킴으로써 국민세금으로 제작되는 동전 제작비를 절감하기위해 시작했다. 시진제공=광주시 동구새마을회

## 송경용 동신대 대학원장, 광주·전남대학원장협의회장 선임

송경용 동신대 대학원장(대외협력부총장·사진)이 광주·전남대학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광주·전남대학원장협의회는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다양한 교육 현안 논의를 통해 지역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광주대,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세한대, 송원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등 14개 대학원이 회원교로 등록돼 있다.

송경용 회장은 “광주·전남 대학원 교육·연구 분야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대학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AI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이 이뤘



지고 있다”면서 “지역의 대학원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고급 인재를 배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용 회장은 현재 동신대 대학원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맡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광주평화재단 이사장, 전남연구원 이사,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직권행정부원회 위원장, 백범문화재단 상임부회장, 전남 남북교류협력센터 감사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강진서 꿈꾸는 새로운 삶...귀농으로 내일 연다

###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7기 출발...기초영농·지역사회 적응 교육

강진군은 최근 강진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7기 입교식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지역사회 단체 임원과 귀농인협의회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입교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 학생들은 본격적인 농촌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개교했다.

올해 7기 교육과정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9세대 13명이 입교했으며, 특히 농업을 꿈꾸는 은퇴 연령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입교생들은 11월까지 기초 영농 교육을 비롯해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교육,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선진 농가 견학 등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교육 받는다.

강진군은 입교생들이 단순히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취·장



업 상담과 연계 지원을 병행하며, 주거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도 인내에 실질적인 귀촌을 돕는다.

앞서 진행된 2024년 6기 교육에서는 11세대 중 9세대가 강진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입증했다.

최영아 강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을 꿈꾸며 강진을 선택한 입교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작목 재배기술을 익히고 농촌의 정서와 공동체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희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광산구, 부동산 안심거래 지킴이 ‘지켜줘 홈즈’ 위촉식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0일 구청 상강실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를 위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켜줘 홈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진제공=광주시 광산구